

“5년 전 제안...난 타고난 이현주”

의외로 웃기고 느슨한 모습에 반해 '안나'역 캐스팅? "탁월한 선택이죠" 12년간 연기만 바라본 '천생 배우' "난 차갑고 타이트한 사람 아니에요"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시리즈 '안나'에서 악역을 맡은 정은채는 "기존 악역들의 표독스러움 대신 현실감 있고 명량함을 강조해 색다른 매력을 자아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예측불허!”

배우 정은채(정슬미·36)는 12년간 걸 어온 자신의 연기 행보를 한마디로 정의했다. 2010년 영화 '초능력자'로 데뷔한 이후 내내 "새 도전"에 몸을 던졌다. 무뚝뚝한 형사('손 더 게스트')였다가 카리스마 넘치는 총리('더 킹:영원의 군주')도 됐다. "신선할 수만 있다면" 주·조연 가리지 않았다.

8일 최종화를 공개하는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시리즈 '안나'는 그 정점으로 꼽힌다. 유복한 집안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탓에 남을 향한 배려도, 악의도 없는 '해맑은 악녀' 이현주 역을 맡아 주인공 공 수지와 대립한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나" 싶을 정도로 무례한 발언도 서슴지 않지만, "완벽한 삶 속에서 모한 허무를 느끼는" 복잡한 캐릭터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7일 서울 삼정동 한 카페에서 만난 정은채는 "현주의 예측할 수 없는 매력이나를 작품으로 이끌었다"면서 "도전 한 보람이 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 "수지에게 박수쳐주고파"

드라마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유미

(수지)가 이현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후 그의 신분을 훔쳐 안나로 이름을 바꾸고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내용이다. 정은채는 "무려 5년 전에 제안 받은 작품"이라며 "처음부터 나는 이현주였다"고 웃음을 터뜨렸다.

"연출을 맡은 이주영 감독이 전작인 영화 '싱글라이더'를 마지막까지 제게 대본

을 쥐어줬어요. 왜 이현주 역으로 나를 떠올렸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의외로 웃기고 느슨한 제 실제 모습을 대중에 꼭 보여주고 싶었대요. 사실 저 그렇게 차갑고 '타이트'한 사람 절대 아니에요. 하하하!" 이 감독과 오랫동안 드라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캐릭터에 개성을 녹여냈다. 12살 무렵부터 8년간 영국에서 살

았던 이력을 설정에 그대로 담아내기도 했다. "오랫동안 궁극증을 키워왔던" 안나 역에 수지가 캐스팅됐을 때에는 "탁월한 선택"이라며 무릎을 '탁' 쳤다.

"한 인물의 삶을 깊게 파고든 '안나'는 배우라면 누구나 한 번쯤 도전하고 싶을 만해요. 과연 안나를 누가 맡을까 정말 궁금했죠. 수지가 과감하게 도전해 주었어요. 기존에 가진 사랑스러운 이미지를 깬 선택이기에 짜릿함이 더욱 배가됐죠. 정말 박수쳐주고 싶어요."

● "한 발짝씩 나아가는 게 좋다"

3월 공개한 애플TV+ '파친코'에 이어 또다시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무대에서 빛을 봤다. "각종 플랫폼에서 다양한 방식이 시도되면서 자연스레 기회를 얻은 것뿐"이라며 정은채는 겸손해했다.

"사람들이 '정은채가 저런 캐릭터도 하네?' 라고 생각할 만한 작품들에 적극적으로 임해요. 그런 예측불가능한 행보가 오랜 연기 인생을 끌고 갈 튼튼한 밑바탕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맥락 없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저만의 힘인걸요?"

요즘에는 "좀 더 자유로운 마음"으로 연기를 해나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전보다 스스로 더 관대해지고,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다 보니 저절로 자신감이 붙었어요. 촬영현장과 나의 연기를 더욱 깊게 좋아하게 됐어요. 이런 마음이라면 더욱 과감한 도전에도 뛰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3

1000만 영화 '범죄도시2' 인권위 진정 왜?



영화 '범죄도시2'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범죄도시2'가 베트남서 상영 금지된 가운데, 국내 장애인 단체들은 영화 속에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조장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7일 롯데시네마에 따르면 베트남 내에서 영화 상영을 추진했지만 당국이 "영화에 너무나 폭력적인 장면이 많다"면서 심의 반려 조치를 내렸다. 한편 한국정신장애인의전화회와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등 단체들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장애인을 폭력적이고 위험한 범죄자로 표현하고, 예측 불가능한 난폭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다"며 상영 중단과 제작진의 사과를 요구했다.

개그우먼 강유미, 결혼 3년 만에 합의 이혼



강유미

개그우먼 강유미(39)가 결혼 3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2019년 비연예인 남편과 결혼한 그는 최근 합의 이혼했다. 강유미는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빠이온 상처였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구독자들의 응원 덕분에 일적으로 만큼은 바쁘게 지낼 수 있었던 점이 기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2004년 KBS 19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뒤 강유미는 KBS2 '개그콘서트'에서 '사랑의 카운슬러' '분장실의 강 선생님' 등 코너를 통해 인기를 얻었다.

'무면허·경찰폭행' 래퍼 노엘, 징역 3년 구형



노엘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국민회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장용준·22)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소 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정도 불량하다"라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21일 열린다.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경찰관을 폭행했다.

'구작이 명작'...유튜브 웹드라마 부활 붐

'신병' '이과장' 등 예능 콘텐츠 호평 인기작 '마녀사냥'도 내달 시즌2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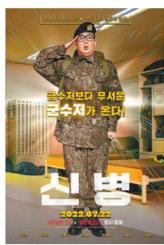
'구작이 명작'이다. 토종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들이 유튜브 웹드라마를 콘텐츠로 다시 제작하거나 지난 예능 콘텐츠를 부활시키고 있다. 이미 인기를 얻으며 대중성을 확보한 콘텐츠로 흥행 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시즌은 독특한 스펀트 애니메이션으로 315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채널 '장빠'의 대표 시리즈물 '신병'을 오리지널 시

리즈로 만들어 22일 공개한다. 장빠주의 실제 군 생활을 바탕으로 만든 '신병'은 누적 2억5000만 뷰를 기록할 정도로 유튜브 상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신병'은 장빠주가 직접 극본 작업에 참여하고, 대표적인 군 드라마 tvN '푸른거탑'의 민진기 PD가 연출을 맡는 작품이다. 드라마 '꽃 피면 달 생각하고', 영화 '스윙 키즈'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김민호를 비롯해 남태우, 차영남, 이정현 등 신예들이 출연한다.

왓차는 유튜브 채널 '이과장'을 통해 500만 뷰에 달하는 누적 조회수를 기록한



'신병'

에 공식 초청됐다.

과거 화제의 예능프로그램도 OTT를 통해 새 생명을 얻고 있다.

티빙은 2013년부터 2015년 JTBC가 방 송한 토크쇼 '마녀사냥'을 '마녀사냥 2022'이라는 타이틀로 부활시켜 8월 오리지널

콘텐츠로 공개한다. 연예 관련 예능 콘텐츠가 최근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방영 당시 19금 토크로 인기를 끌었던 '마녀사냥'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당시 호응을 맞췄던 흥인기 PD와 신동엽이 복귀한다.

앞서 후발 OTT 쿠팡플레이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tvN이 9개의 시즌을 방영한 'SNL코리아'를 첫 오리지널 콘텐츠로 선보여 단숨에 인지도를 높였다. 사회 초년생의 모습을 담은 코너 '주기자'의 주현영을 스타덤에 올려놓기도 했다.

한 OTT 플랫폼 관계자는 "콘텐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이미 대중성을 검증받은 콘텐츠를 확보해 우위를 점하려는 시도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미 기자 smlee@donga.com

롱타임노씨 어떤 브랜드 인가요?

대표 전화 ☎ 1899-1029

WHAT? 살아 숨쉬는 수제도우로 만든 수제피자와 29가지 수제맥주를 맛보고 원하는 만큼 마시는 '셀프랩하우스'의 콜라보레이션.

수제피자 × 수제맥주

Q. 자동화시스템, 비싸지 않나요?

A. 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기창업비는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화시스템과 만난다면 인건비와 각종 수당은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인건비 + 추가인원 + 야간수당 → 수익

매장내 1명 이상의 인원절감 가능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운영 가능

5인 이상 사업장 야간수당 지급의무 등 기타 관리 비용 발생

인건비와 각종수당은 수익으로 다가옵니다.

실제 매출 공개

04-01 (월)	570	2,594,320	04-12 (월)	450	2,495,080
04-02 (화)	750	2,458,620	04-13 (화)	660	2,435,340
04-03 (수)	490	1,626,070	04-14 (수)	540	2,042,680
04-04 (목)	410	1,756,890	04-15 (목)	660	3,142,490
04-05 (금)	310	1,345,520	04-16 (금)	840	3,286,600
04-06 (토)	530	2,179,900	04-17 (토)	620	2,276,860
04-07 (일)	520	2,475,990	04-18 (일)	380	2,366,940
04-08 (월)	600	2,752,260	04-19 (월)	460	2,056,320
04-09 (화)	670	3,770,760	04-20 (화)	580	2,300,000
04-10 (수)	600	2,659,340	04-21 (수)	490	2,470,000
04-11 (목)			04-22 (목)	700	3,468,000

2층 매장의 높은 매출!!

4년간 동년 1등

75,299,020원

Q. 롱타임노씨 어떤 브랜드 인가요?

A. 우리는 속도보다 올바른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롱타임노씨의 시작은 외식창업 시장 속 경쟁력 없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없어지는 브랜드가 아닌 건강하고 오래가는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맥주장인, 피자장인 그리고 운영장인(점주님)이 만나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진행중에 있습니다.

셀프랩방식의 장점

- 비싸다고 느낄 수 있는 수제맥주를 조금씩 다양하게 마실 수 있다.
- 다양한 맥주들을 로스없이 소진시킬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맥주시스템.
- 유행이 아니라 키오스크(자동주문)와 같은 시대적 흐름.

운영의 장인을 모집합니다.